

1969~1975년을 중심으로 Fashion Trend와 관련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신순애* · 이은옥

*덕성여자대학교 Textile Art & Media Center 연구원,
덕성여자대학교 예술학부 섬유미술전공 조교수

21세기 섬유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Life Style의 변화에 따라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패션상품으로서의 소재는 물리적 효용가치 이외에 심리적, 감성적 가치 및 회소가치가 부가됨으로써 유행주기에 신속히 부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직물소재에 패션성을 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독창성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 이후의 섬유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해보면 외국디자인의 모방은 물론, 당시 직물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전문지식과 디자인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인한 독창적인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의 패션의류제품에 자료를 분석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패션트렌드의 영향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의상지인 <의상>지를 중심으로 창간된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소개된 의상사진의 시각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대상 기간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패션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패션을 고려하여 동일한 트렌드가 나타나는 1969년에서 1970년까지와 1971년에서 1975년까지의 두 시기로 설정하여 관련서적 및 기타 문헌자료를 근거로 전반은 로맨틱, 후반은 클래식 트렌드로 규정하였다. 이 트렌드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수집된 시각자료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항목으로는 그 주요구성요소인 패턴의 종류와 그의 칼라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969~1970년까지 <의상>지에 나타난 총 의상사진의 741개였으며 이중 패턴의 형태를 분석에 사용된 것은 350개이며 1971~1975년의 경우 1416개의 의상사진 중 패턴이 나타나는 581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칼라분석에는 흑백사진을 제외한 전자 115개, 후자는 186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텍스타일 패턴은 Geometric, Abstract, Floral, Stripe, Animal skin, Conversational, Ethnic 등 모티브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칼라는 P.C.C.S를 근거로 색상과 명도 및 채도에 따른 칼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1969년~1970년까지의 패턴유형은 총 분석자료 350개 중 Stripe이 169개, Floral이 84개, Geometric이 57개로 부드러운 질감의 꽃무늬와 민속풍의 기하학적 무늬의 사용이 일반적인 로맨틱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1~1975년까지는 총 분석자료 581개 중 Stripe이 318개, Floral이 113개, Geometric이 83개로 체크와 지오메트릭 문양의 클래식 트레

드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라분석은 총 301개의 칼라화보를 가지고 P.C.C.S 색상환과 명도와 채도의 분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69~1970년까지의 115개의 복식사진 중 색상은 yellow 및 blue계열이 같은 등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red계열, purple 계열 순으로 분포되었다. 명도와 채도는 light grey군의 soft톤이 분석자료 115개중 31개로 가장 많이 나타나 밝은 톤과 원색이 많이 사용되는 로맨틱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1~1975년까지는 총 186개의 복식사진중 red계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yellow계열과 blue 계열 그리고 purple과 green계열 등 다양한 색상이 나타났다. 또한, 명도와 채도는 중간정도의 채도 높은 회색을 보이는 자료가 5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light grey톤은 34개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텍스타일디자인은 패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와 소비자의 기호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개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 텍스타일디자인과 패션트렌드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초창기인 1969년부터 1975년까지를 고찰하여 두 관계에 대한 역사성과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패션트렌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텍스타일디자인의 개발과 그와 관련된 패턴 및 색채, 트렌드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